

## 학령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s,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on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임승현(Seung Hyun Lim)<sup>1)</sup>

박성연(Seong Yeon Park)<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way in which children characteristics,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affect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otal of 291 children (Mage=11.4) responded to questionnaires DOTS-R (Windle & Lerner, 1986), MBRI (Schaefer, 1959),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im & Park, 2002), and FQQ (Parker & Asher, 1993). Data were analyzed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ur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fu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whereas it was a partial mediator in relations between maternal warmth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 difference in terms of gender was also present in this path model. In conclusion, children's temperaments and maternal warmth affecte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온정성(warmth),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competence), 또래관계의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자료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전공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Colleg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 I. 서 론

학령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또래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또래관계는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점점 더 중요시된다(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또래관계가 질적으로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원만하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결정되기 때문(Rubin, Bukowski, & Parker, 1998),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이란 또래 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동이 사회적,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반영하는 변인(이은혜, 1998)이다. 따라서 또래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수용되며 인기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또래 수용도(Hartup, 1983)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정대현, 2006; Davidov & Grusec, 2006; Gleason & Gower, 2005)은 또래 수용정도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주된 관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된 변인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과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은 성이나 기질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관계를 더 쉽게 맺고 상호간에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윤미경, 1998),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에게 더 지지적이고 덜 적대적이며 더 애정적으로 대하여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한현아·도현심, 2006; Cui Ming, Conger, Bryant, & Elder JR., 2002). 타고난 고유한 특성인 기질 또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또래관계의 질이 낮으며, 순한 기질의 아동은 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정은, 2005; 이명숙, 1998; McCoy, Brody, & Stoneman, 2002). 특히 아동의 기질의 각 하위영역 중 활동수준, 접근성,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관계와 밀접한 상관을 보여(Pike & Atzabe-Poria, 2003; Parker-Cohen & Bell, 1988), 기질적으로 활동적이고 새로운 것에 쉽게 접근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아동이나 사회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김은지, 1996; 박혜원, 1996; 황영미·문혁준, 2006). 그러나 기질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면, 활동성이 높은 남아는 또래인기도가 높은 반면 활동성이 높은 여아는 인기가 없고 무시당하며(이은희, 2000),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남아는 또래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으나, 공격적인 여아는 또래로부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Chung, 1978).

아동의 환경적 특성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온정성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에 가장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김미화, 2006; 도금혜·최보가, 2007; 윤명주, 2002; 최유경, 1998)는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어머니의 온정성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

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온정성은 자녀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자녀 중심으로 설명해주며 아동이 잘못했을 때 처벌대신 상을 사용하는 애정적 양육태도로, 아동의 행동특성이나 태도, 그리고 가치발달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가 아동을 온정적으로 대할수록 또래수용도가 높으며(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Losoya, Guthrie, & Murphy, 2001),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도금혜 · 최보가, 2007; 윤명주, 2002; MacDonld, 1992).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적 행동과 또래수용도간의 긍정적 관계는 남아에게서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어(Davidov & Grusec, 2006) 부모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온정성 또는 부모와의 애착을 동시에 고려하여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남녀 아동 모두에게 기질 중 정서성은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어, 정서성이 긍정적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았으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경우만 또래관계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김현나 · 이경남, 2008). 그러나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친구관계는 기질적 특성 및 부모와의 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아의 친구관계는 주로 기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 및 부모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연구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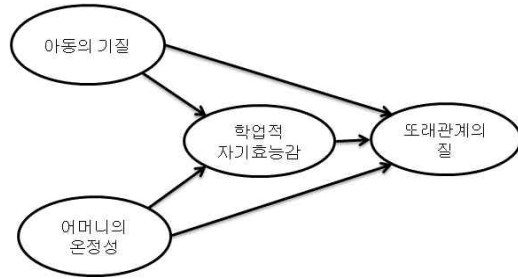
한편, Erickson(1988)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학령기의 발달과업으로서 학

교생활에서 유능감(competence) 또는 효능감을 적절히 발달시키는가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열등감과 근면성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업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 & Schunk, 1981).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학업성취와 학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감은 아동이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 도전하고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래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반면에 학령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아동들은 일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발달은 물론 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 형성이나 또래관계의 질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몇몇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것이 입증되고 있다(김미화, 2006; 박연경, 2006; Herman, Lamnert, Reinke, & Lalongo, 2008).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온정성이나 아동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성이 학업성적 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화, 2006; Pettit, Bates, & Dodge, 1997). 그러나 기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관한 결과들은 비 일관적이다. 즉,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아동이 순한 기질이나 반응이 느린 기질의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다(Colom, Escorial, Shih, & Privado, 2007)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순한 기질의 아동보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최옥희·김용미, 2008)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을 까다로운 기질, 쉬운 기질, 반응이 느린 기질로 나누어 본 경우와는 달리, 기질의 각 하위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외의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충동성이 낮을수록(Vigil-Collet & Morales-Vives, 2005), 주의집중성과 긍정적 정서가 높고, 활동수준이 낮을수록(배전경, 2007; 윤정민, 199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기질 및 부모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의 기질, 부모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온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온정성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각의 변인들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김은지, 1996; 도금혜·최보가, 2007; Gleason & Gower, 2005)은 다수 이루어진 반면에,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 및 각 변인들이 또래관계의 질에



<그림 1> 연구모형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경로가 어떠한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총 291명(남아 : 142명, 여아 :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평균연령은 11.40세( $SD=0.49$ )이며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가 43.8세( $SD=4.3$ ), 어머니가 40.7세( $SD=3.8$ )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은 중상(23.4%)과 중(61.2%)에 많은 분포를 보여 대체로 중산층 가정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모든 척도는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기질차원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 DOTS-R)를 Windle과 Lerner(1986)가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정하고 김말경(199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OTS-R은 10개의 하위요인의 총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4개 차원(주의산만성, 접근성, 기분, 주의지속성)의 18문항만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기질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5문항을 제외한 총 13문항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의산만성(Distractability)’은 역부호화하여 외적인 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지각적인 초점을 유지하는 정도인 ‘주의집중성’으로 정의하여 평가하였고, ‘접근성(approach)’은 자극을 향해 움직이거나 자극으로부터 피하는 정도이다. 또한, ‘기분(mood)’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적 균형의 정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으며, ‘주의지속성(Attention persistence)’은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오래 기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68~.78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온정성

어머니의 온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 (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기초로 한종혜(1980), 조성연(1990)등이 수정 보완하고 윤명주(200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BRI는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하여 고전적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도금혜·최보가, 2007; 윤명주, 2002)을 토대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온정성에 초점을 두어, 애정적 양육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50 이하인 3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선정하여 연구문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온정성’은 어머니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자녀 중심으로 설명해주며, 아동이 잘못했을 때 처벌대신 상을 사용하는 애정적 양육태도 정도로 측정된다. 어머니의 온정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항수가 9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측정변수를 적정한수로 문항을 합해 하나의 지표변수로 쓰는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3문항씩 3개의 측정변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온정성의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76~.83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2, 2001)이 표준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18문항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의 세 요인으로 측정되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낮은 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요인을 포함한 8문항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과제나 목표 설정 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이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의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 기제를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각 .79와 .81로 나타났다.

#### 4)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질문지(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 FQQ)를 윤미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QQ는 6개의 영역의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련 문항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5개의 하위영역(인정과 관심, 교제와 오락, 도움과 안내, 상호친밀, 갈등해결)의 총 22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인정과 관심’은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심, 지지, 흥미의 정도이고, ‘교제와 오락’은 아동 서로가 함께 학교 안팎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를 뜻한다. ‘도움과 안내’는 아동 서로가 일상적인 일이나 도전적인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 노력하는 정도이고, ‘상호친밀’은 아동 서로가 사적인 비밀 이야기나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이며, ‘갈등해결’은 아동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71 ~ .86이었다.

###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2008년 12월 중 약 2주간 서울시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480개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453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하거나 연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29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을 위하여 공분산행렬자료를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 : MLE)이 사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우선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기초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9.333	67	.934	.952	.964	.061

<표 2>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모수 추정치 (N=291)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SE	C.R.	p
아동의 기질	주의지속성	1.000	.858			
	기분	.492	.438	.072	6.863	***
	접근성	.546	.515	.063	8.614	***
	주의집중성	.863	.839	.062	13.912	***
어머니의 온정성	온정성 1	1.000	.744			
	온정성 2	1.220	.818	.104	11.766	***
	온정성 3	.919	.729	.083	11.061	***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1.000	.854			
	과제난이도선호	.999	.758	.085	11.763	***
또래관계의 질	관심과 인정	1.000	.843			
	교제와 오락	.839	.750	.057	14.699	***
	도움과 안내	1.017	.885	.054	18.924	***
	상호친밀	1.117	.802	.069	16.219	***
	갈등해결	.968	.748	.066	14.626	***

\*\*\* $p < .001$

Factor Analysis : CFA)을 위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고 모수추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chi^2$ 값, NFI, TLI, CFI 및 RMSEA 등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지수<sup>1)</sup>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켜 본 연구의 측정모형

1) 모형의  $\chi^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홍세희, 2000)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유도와 독립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NFI, TLI, 그리고 C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0 이상일 때 적합하며, RMSEA는 절대지수로 보통 .0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08 이하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Hu & Bentler, 1999).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잠재변인들의 모수추정치(요인부하량)를 살펴보면(<표 2> 참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각 측정변수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분(.438)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나(이학식·임지훈, 2008) 이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이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공분산구조모형에서 특정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NFI	TLI	CFI	RMSEA
구조모형	124.971	66	.941	.960	.971	.056

적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중  $\chi^2$ 는 124.971( $df=66, p<.001$ )이며 NFI는 .941, TLI는 .960이고, CFI는 .971, RMSEA는 .056으로 나타나(<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이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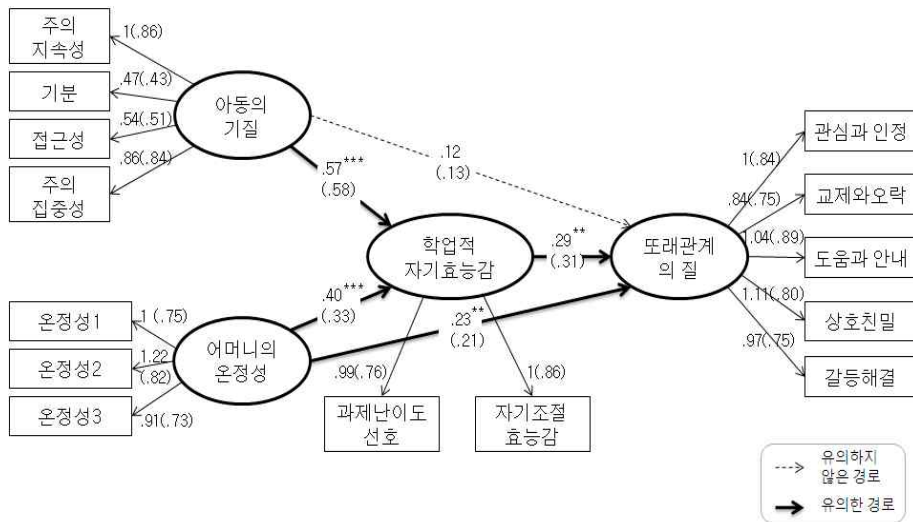
한편,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모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아동의 기질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모두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그림 2> 참조). 이

<표 4> 구조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N=291)

모수	B	$\beta$	SE	C.R.	p
기질 → 또래관계의 질	.116	.127	.084	1.387	-
모의 온정성 → 또래관계의 질	.233	.207	.083	2.808	**
학업적 자기효능감 → 또래관계의 질	.293	.311	.103	2.851	**
기질 → 학업적 자기효능감	.565	.582	.064	8.850	***
모의 온정성 → 학업적 자기효능감	.397	.332	.077	5.161	***

\*\*\* $p<.001$  \*\* $p<.01$



<그림 2>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 $p<.001$  \*\* $p<.01$

주 1) 각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표준화 회귀계수)임.

주 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표 5> 아동의 성에 따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chi^2$	df	NFI	TLI	CFI	RMSEA
남아	91.840	65	.911	.960	.972	.054
여아	91.558	65	.922	.960	.975	.052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아동의 기질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565(.582),  $p < .001$ 로 유의하였으나, 아동의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27, p > .01$ ).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에 대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 추정치는 .397(.332),  $p < .001$ ,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의 경로 추정치는 .233(.207),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에도 내생변수인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또래관계의 질의 경로 추정치는 .293(.311),  $p < .01$ 로 유의하였다.

## 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의 질의 구조모형의 성차

연구문제 2인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은 모두 모형의 적합도지수가 기준치에 부합하여 전반적으로 이 구조모형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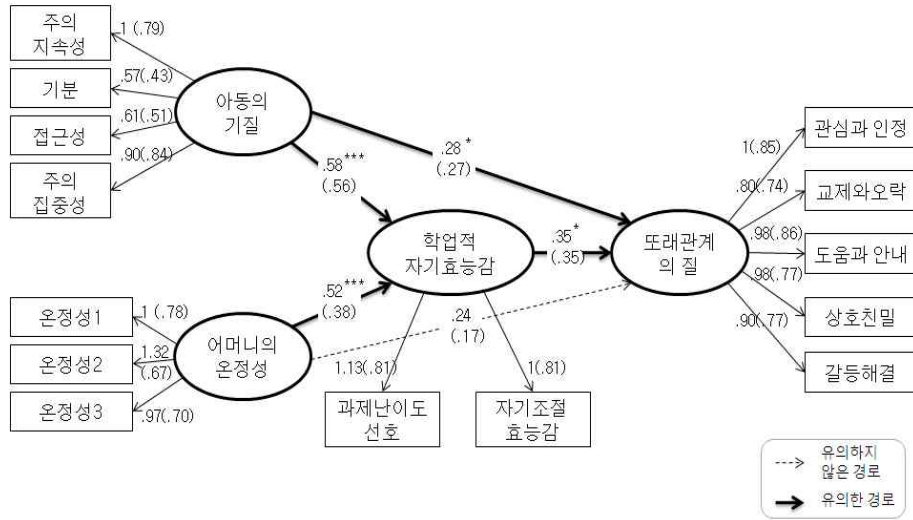
한편, 남아 여아 각 집단에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모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남아 집단의 경우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의 경로 이외의 모든 경로의 경로계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그림 3>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남아의 기질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579(.562)이며, 남아의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283(.272), 어머니의 온정성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 추정치는 .517(.381)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의 경로 추정치는 .239(.175),  $p > .10$ 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은 남아의 또래관계의 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변수인 남아의

<표 6> 남아집단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N=142)

모수	B	$\beta$	SE	C.R.	p
기질 → 또래관계의 질	.283	.272	.134	2.106	*
모의 온정성 → 또래관계의 질	.239	.175	.153	1.563	-
학업적 자기효능감 → 또래관계의 질	.348	.345	.164	2.128	*
기질 → 학업적 자기효능감	.579	.562	.103	5.626	***
모의 온정성 → 학업적 자기효능감	.517	.381	.140	3.689	***

\*\*\* $p < .001$  \* $p < .05$



<그림 3> 남아집단의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 $p < .001$  \* $p < .05$

주 1) 각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표준화 회귀계수)임.

주 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또래관계의 질의 경로 추정치는 .348(.3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집단의 경우는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기질의 경로 이외의 모든 경로의 경로계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그림 4>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여아의 기질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561(.577)로 기질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아의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

는 경로계수는 .071(.087),  $p > .01$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성에 대한 여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로 추정치는 .310(.275)이며, 여아집단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의 경로 추정치는 .172(.182)로 유의하였다. 또한 내생변수인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또래관계의 질의 경로 추정치는 .212(.25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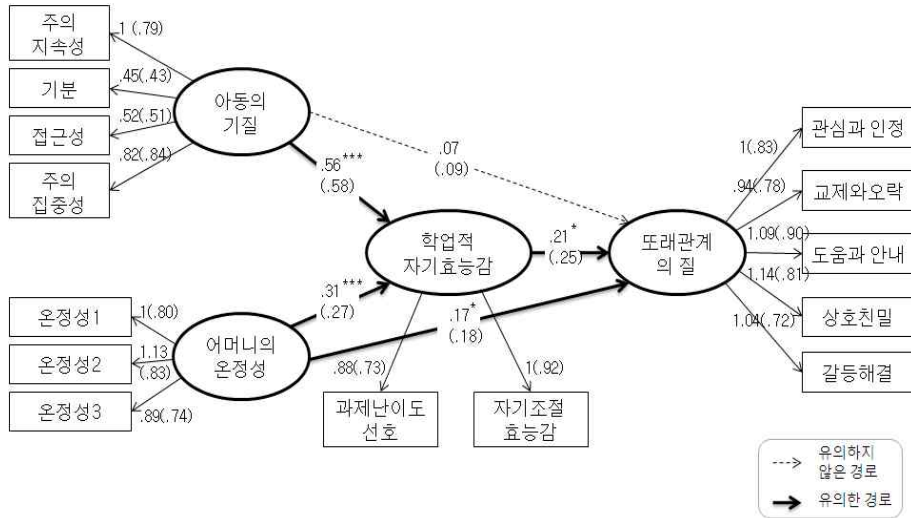
한편, 구조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인들 간의 효과를 분석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표 7> 여아집단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N=149)

모수	B	$\beta$	SE	C.R.	p
기질 → 또래관계의 질	.071	.087	.100	.713	-
모의 온정성 → 또래관계의 질	.172	.182	.091	1.885	*
학업적 자기효능감 → 또래관계의 질	.212	.253	.091	1.883	*
기질 → 학업적 자기효능감	.561	.577	.084	6.721	***
모의 온정성 → 학업적 자기효능감	.310	.275	.094	3.292	***

\*\*\* $p < .001$  \* $p < .05$



<그림 4> 여아집단의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 $p < .001$  \* $p < .05$

주 1) 각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표준화 회귀계수)임.

주 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된 모수추정치와 경로계수를 토대로 남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각 변인이 남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아집단의 각 경로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남아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아동의 기질(.467)이었으며, 학업적 자

기효능감(.345), 어머니의 온정성(.306)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남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345), 기질(.272)의 순으로 유의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때, 기질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272)와 간접효과(.194)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나( $\beta = .175, p > .01$ ), 남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유의할 때,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남아(N=142)			여아(N=149)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기질	.272*	.194*	.467*	.087	.146*	.233*
모의 온정성	.175	.131*	.306*	.182*	.069*	.252*
학업적 자기효능감	.345*	-	.345*	.253*	-	.253*

\* $p < .05$

한편, 여아집단의 각 경로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여아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253)이었으며, 어머니의 온정성(.252), 여아의 기질(.233)의 순으로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253), 어머니의 온정성(.182)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생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아의 기질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나( $\beta=.087, p>.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가 유의할 때,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온정성은 여아의 또래관계의 질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때 어머니의 온정성의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182)와 간접효과(.069)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91명을 대상으로 남녀 아동의 타고난 특성과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아동의 기질,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기질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았다. 이는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기질의 영향을 받으며(Colom et al, 2007; Vigil-Colet & Morales-Vives, 2005),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박연경, 2006; Levy-Tossman, Kaplan, & Assor, 2007)과 일맥상통하나, 아동의 기질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정은(2005)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할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기질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연관되며(김미화, 2006; 김은하, 2005; Pettit et al, 1997),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을 높인다(박연경, 2006;

Herman et al, 2008; Levy-Tossman et al, 2007)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도금혜와 최보가(2007), 그리고 윤명주(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학업에 매진하고 도전하는데 유능감을 느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온정적 경험을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질적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고난 아동의 성향이 긍정적일 때, 학령기시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나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유전적 특성 뿐 아니라 학령기에 학업에 대한 도전감과 자신감도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또래관계의 질도 높아,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이 자각한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인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의 관련변인들이 또래관계의 질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집단으로 나누어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남아집단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기질이 또래관

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어머니의 온정성과 남아의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여, 어머니의 온정성의 간접적인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또래관계의 질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온정성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때,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남아의 경우 아동의 기질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온정성은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아집단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역할을 하여, 기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때,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아집단에서 아동의 기질,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질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어머니의 온정성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아

의 경우, 아동의 기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관여할 때,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온정성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었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성차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어 높은 활동성이나 공격적 기질의 남아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선행연구들(이은희, 2000; Chung, 1978)이나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들(정미자·이숙, 1996; Davidov & Grusec, 2006)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또래관계의 질에 있어 남아에게는 타고난 성향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고, 여아에게는 어머니의 온정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본 연구결과는 특히 여아에게서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현나·이경남, 2008), 여아의 경우 또래관계의 질은 기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행연구(장휘숙, 2008)와는 상반되나,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여아의 또래유능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김현나·이경남, 2008)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또래관계의 질에 대하여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성보다는 아동의 기질이 직접적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서 긍정적 기질의 남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원만하게 형성하여 또래관계의 질이 좋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이 여아의 사회성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

으로써,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아보다 여아에게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동성부모인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를 더 잘 모방함으로써 기능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온정성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질과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한 반면, 여아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아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였으나, 여아의 경우 부분 매개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성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인 한편, 특히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온정성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보다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이 더 크며, 여아에게는 아동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 발달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한 공분산구조모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기질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성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경로만을 분석하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성의 상호작용은 살펴

보지 않았다. 그러나 Thomas와 Chess(1977)의 적합성 모델을 고려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질의 중재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을 원만하게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아동의 생물학적 특성인 기질과 가장 근접한 환경인 어머니의 온정성, 그리고 학령기시기에 형성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과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발과 지도의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한편 변인들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성차를 확인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바람직한 또래관계의 질 증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참 고 문 헌

- 김말경(1996). 아동의 학업성취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모델과 조화적합성 모델 비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2006). 부모 양육 태도 및 교사 태도 지각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 박인영(2001).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은하(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1996). 청소년의 기질이 형제 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나 · 이경남(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 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도금혜 · 최보가(2007). 청소년의 또래집단이 지각한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8(1), 107-134.
- 박연경(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간의 모형검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1996). 청소년의 기질이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전경(2007). 아동의 기질 및 또래집단 수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은(2005).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 간 상호작용.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명주(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초등학생 자녀의 또래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민(1997). 중학생들의 기질이 과학 태도 및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1998). 유아의 성, 기질 및 인기도에 따른 또래 간 요구전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1998).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희(2000). 유아의 성, 출생순위, 또래지위와 기질의 관계.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 범문사.
- 장휘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1), 69-87.
- 정대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성격특성 및 능력이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자 · 이숙(1996).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41-252.
- 최옥희 · 김용미(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2(1), 79- 109.
- 최유경(2008). 부모 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아 · 도현심(2006).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황영미 · 문혁준(2006). 또래 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국가정학회지**, 44(2), 83-9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6.
- Bandura, A., & Schunk, D.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Chung, M. J. A. (1978). Study of popularity, physical attractiveness, social behavior and child rearing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Y. : Syracuse University.
- Colom, R., Escorial, S., Shih, P. C., & Privado, J. (2007). Fluid intelligence, memory span, and temperament difficulties predict academic performance of you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03-1514.
- Cui Ming, Conger R. D., Bryant C. M., & Elder G. H. JR. (2002). Parental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s : A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76-689.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Eisenberg, N., Gershoff, E., Fabes, R., Shepard, S., Cumberland, A., Losoya, S., Buthrie, I., & Murphy, B.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75-490.
- Erik H. Erikson (1988). *Childhood and Society*. 윤진 · 김인경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Gleason, T., & Gower, A. (2005). Temperament and friendship in pre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4), 336-344.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hips. In Print, H. Mussen (Eds).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103-196.
- Herman K. C., Lammert S. F., Reinke W. M., & Lalongo N. S. (2008). Low academic competence in first grade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400-41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vy-Tossman I., Kaplan A., & Assor A. (2007). Academic goal orientations, multiple goal profiles, and friendship intimacy among early adolesc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2), 231- 252.
- MacDonald, K. B. (1992). Warmth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 An evolutiona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4), 753-773.
- McCoy, J. K., Brody, G. H., & Stoneman, Z. (2002).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best friendships :



- Effect of same-sex sibl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51(3), 248-255.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ike, A., & Atzaba-Poria, N. (2003). Do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share the same temperamental origins? A twi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4), 598-611.
- Rubin, K., Bukowski, W., & Parker, J. (1998).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sup>th</sup>ed). New York : Wiley. 610-700.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43-157.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 Vigil-Colet, A., & Morales-Vives, F. (2005). How impulsivity is related to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8(2), 199-204.

---

2009년 10월 30일 투고, 2009년 12월 30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